

지역 소식 통

정읍시보건소, 아토피
피부염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하반기 아토피 피부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3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월 1회씩 총 3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을철 아토피 피부 관리법과 생활수칙에 관한 교육을 비롯해 유기농 로션과 한방 삼푸 만들기 체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한방진료실(☎63-539-6135)에서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는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 김대환 기자

노인회 정읍시지회,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개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이호춘)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회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사업단별로 2025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지난 9개월간 느낀 소감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고 더 나은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정읍시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회는 현재 노인공익활동사업 1518명(10개 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505명(7개 사업단), 공동체사업단 50명(1개 사업단) 등 총 207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 김대환 기자

정읍시, 미래 발전 청사진 제시

이학수 시장 주재 ‘2026년 주요정책 발굴 보고회’

반려동물 헬스케어 상용화 플랫폼 개발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등 정읍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핵심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정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예산 사업 77건 △부서별 신규 시책 185건 △인구시책 44건 △공약사업 91건의 주요시책을 공유·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문제점·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방식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논의된 주요 시책으로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상용화 플랫폼 개발 △국가 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연자동 행정복합문화타운 건립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 △환경교육도시 공모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화센터 시

설 개선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역활력다운 조성 △재해 예방 감곡천(봉석지구) 지방하천 정비 △수성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등이 제시돼 정읍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시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계속 사업도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시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 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성화 불 밝혀

방장산서 채화된 성화 드론으로 고창읍성에 이송돼 천제 봉행

고창군이 11일 오전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을 고창읍성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삼덕읍 고창군수, 주민



군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 한숙경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체육회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방장산에선 주선녀의 성화 채화 의식이 펼쳐졌으며, 채화된 불꽃은 드론에 실려 고창읍성으로 봉송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번 연출은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고창읍성에 도착한 성화는 고창군수를 거쳐 최초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 봉송의 첫 주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젊은 부부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출발하는 장면은 사랑과 희망,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며 현장에 특별한 감동을 더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방장산과 고창읍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장소로, 방장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도민체육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 고창군, 세계유산 정책 논의 선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도시 고창군)는 한국 세계유산의 현안과 정책 연구의 장인 세계유산 정책연구회를 11~12일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31개 세계유산 보유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미래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동 토의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실무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 및 교류·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

이다.

한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회장도시 고창군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 31개 기초자치체로 구성된 단체다. △세계유산 보유 도시 상호 간 우호 교류 증진, △세계유산 사무 공동 연구 조정, △회원도시 상호 의견 교환 및 효율적 행정 추진 등을 위하여 지난 2010년 설립된 국내 세계유산을 대표하는 행정협의체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

고창군 관계자는 “세계유산 정책연구회는 한국의 세계유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유산도시 실무진 간 교류·소통을 통해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정법원 · 정읍지원 설치 촉구

정읍시, 전북변호사회와 간담회... 서남권 사법 서비스 강화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읍지원 설치가 고창·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보장할 핵심 대



책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법원 신설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 보장과 주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오면 서남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읍시는 법률인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읍 김대환 기자

“군민 안전을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해야”

이강세 부안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부안군에 규모 4.8 지진으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난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라며 “평소 대비가 곧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강세 의원은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 방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사례로 “전북 서남권 안전교육의 중심지로 부안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환경개선부담금 3050건 8000여만원 부과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3050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71분 약 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경유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탈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9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